

뤼틸레네 논전에 나타난 아테네 민주정과

제국주의:

클레온의 연설을 중심으로

장시은*

【요약】

이 글은 기원전 427년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뫼틸레네가 일으킨 반란을 처리하기 위한 민회에서 행해진 클레온의 연설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분석한다. 첫째, 그가 민중의 분노를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의 제국 지배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대파에 대한 적개심을 환기시키면서 평범한 민중들phauloi을 결집시키려 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둘째, 실질적인 토의보다는 말 자체의 경쟁에 몰두하는 아테네 정치 문화에 대한 클레온의 공격을 세밀히 분석하면서, 그 가운데 드러나는 아이러니의 의미를 고찰한다. 셋째, 클레온의 연설이 가지는 법정 연설적인 특징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구체적인 표현들과 수사적 전략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클레온의 연설은 아테네의 제국 지배에 대한 가장 오만한 정당화의 표현이며 투퀴디데스는 이 연설을 통해서 아테네가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아테네의 가장 영향력 있었던 정치 지도자와 민중과의 상호작용을 보이고자 했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주제어】 투퀴디데스, 클레온, 아테네 민주정, 아테네 제국주의, 뫼틸레네, 민중

*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20130).

[https://doi.org/\[10.34162/hefins.2019..22.010\]](https://doi.org/[10.34162/hefins.2019..22.010])

I. 들어가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한창이던 기원전 428년 여름 메토타나를 제외한 레스보스의 도시들이 뮈틸레네의 주동으로 아테네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 뮈틸레네의 과두파는 스파르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스파르타의 의도적인 늑장으로, 펠로폰네소스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뮈틸레네는 아테네에 포위당하고 말았다. 기원전 427년 뮈틸레네인들은 무조건적으로 아테네의 지휘관 파게스에게 항복했고, 뮈틸레네가 아테네 경비병들에 의해 포위되어있는 동안 주동자들은 아테네로 후송되었다. 아테네인들은 포로의 신병 처리 및 뮈틸레네의 운명을 놓고 민회를 개최한다.¹⁾ 그리고 그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어떤 협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도 없이 주동자인 살라이토스를 즉시 죽인 후, 뮈틸레네의 모든 성인 남성들을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팔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뮈틸레네로 즉시 사람을 보내 지체 없이 그들의 결의안을 실행하도록 했다. 투퀴디데스는 그러나 바로 다음 날 그들의 생각이 변화가 생겼다고 전한다. “바로 다음 날 갑자기 어떤 생각의 변화^{metanoia}가 생겼다. 책임 있는 자들뿐만이 아닌 도시 전체를 몰살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이 가혹하고도 과하다고 재고하게 된 것이다(3.36.4).” 이들이 이런 변화를 겪는 사이, 뮈틸레네 사절들과 이들과 마음을 같이 한 아테네인들도 이 문제를 재고할 것을 설득해냈고, 결국 다음날 민회가 소집된다.

투퀴디데스는 이 두번째 민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 중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연설을 매우 자세하게 들려준다. 이 둘의 연설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당면한 현안, 즉 뮈틸레네 반란의 처리 문제를 훨씬 넘어서나. 그들은 아테네의 제국 경영의 기본 원칙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논하고, 그 원칙이

1) 투퀴디데스 『역사』, 3.36.1. 투퀴디데스의 모든 인용은 본인의 번역이며, 이하 권. 장.절만 표시하겠다.

과연 아테네 민주정과 그것의 근간을 이루는 운영방식과 양립가능하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룬다. 클레온과 디오도토스가 과연 투퀴디데스가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연설을 했을가에 관해서는 종종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전날 이미 뮈틸레네 시민 전원을 처형하기 위해서 뮈틸레네로 배를 보낸 급박한 상황에서, 실제 민회의 소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과연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논의가 가능했을가는 사실 미심쩍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퀴디데스는 자신이 ‘ta deonta’를 기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1.22.1). 그는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연설이 단순히 뮈틸레네 반란의 처리라는 개별적 사건의 이해를 넘어 당대의 아테네 민주정의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정치지도자들의 근원적인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의미심장한 자료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저 둘의 연설은 당대 아테네의 정치 현실과 그것을 움직인 원칙들에 관한 역사가로서의 투퀴디데스의 성찰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클레온의 연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클레온은 페리클레스 사후 아테네 정치인들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었다. 투퀴디데스는 그를 “아테네 시민 가운데 가장 격렬했으며biaotatos 당시 민중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pithanōtatos”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3.36.6).²⁾ 그의 연설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아테네 민중을 설득하려 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왜 그가 아테네 민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는가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투퀴디데스가 뮈틸레네와 처리와 관련하여 클레온의 연설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사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간단히

2) ‘biaiotatos’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는 논란거리이다. ‘난폭한’ 등의 의미로 이해해 이 단어를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격정적’인 등의 의미로 읽어 그 자체로 부정적이라고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biaiotatos’는 또한 클레온의 과격하고, 급진적인 정책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것은 또한, 클레온이 민중을 설득하는 방식을 기술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 아마도, ‘biaiotatos’는 이 모든 특성, 즉 그의 성격적, 정책적, 수사적 특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말해서, 그의 연설은 그가 아테네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그가 아테네인들에게 설득력 있었는지를 보여주었는지와 동시에 역으로 그에게 설득당했던 민중들이 당시에 원하던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클레온에 대한 투퀴디데스의 평가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³⁾ 투퀴디데스는 페리클레스 사후 클레온이 “일인자가 되려는 열망 때문에, 도시의 사안들을 민중의 즐거움에 맡겼던” 지도자들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2.65.10). 따라서, 클레온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왜 아테네가 결국 쇠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투퀴디데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클레온의 연설을 크게 세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그가 민중의 분노를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의 제국 지배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대파에 대한 적개심을 환기시키면서 평범한 민중들 *phauloi*를 결집시키려 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말 자체의 경쟁에 몰두하는 아테네 정치 문화에 대한 클레온의 공격을 세밀히 분석하면서, 그 가운데 드러나는 아이러니의 의미를 고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레온의 연설이 가지는 법정연설적인

3) 예를 들어 그는 펠로스 사건에서의 클레온의 발언들이 “경솔하고”(gelōs... kouphologia, 4.28.5), “미친소리”(maniōdēs, 4.39.3)였다고 말한다. 또 그는 클레온이 전쟁을 바랐던 이유가 “평화시에는 자신의 비행이 쉽게 드러날 것이며 자신이 남을 모함해도 사람들이 믿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5.10.1)이라고 비판한다. 아리스토파네스 역시 클레온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클레온은 ‘신분이 좋지 않고,’ ‘무식하고’(『아카르나이 구역민들』299-302, 『기사』136-7), ‘겁쟁이에 변태’(『아카르나이 구역민들』664), ‘범죄자에 중상모략하는 자’(『기사』40-44), ‘시끄럽고,’ ‘민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온갖 말을 지껄이며’(『기사』215-216)), ‘뇌물을 좋아하는’(『기사』985-990) 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클레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아테네인들을 타락시켰다. 비록 다른 연설가들이 교양 있게 행동했는데 반해, 클레온은 민회에서 연설을 하는 동안 소리를 친 최초의 인물이었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모욕적인 말들을 사용했으며, 그의 무릎을 치기도 했다.”(『아테네 정제』28.3.)

특징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구체적인 표현들과 수사적 전략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II. “민주정은 다른 이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클레온은 다음과 같은 말로 연설을 시작한다. “이전에도 여러 번 저는 민주정은 다른 이들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특히나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뫼틸레네인들에 대해 마음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민주정은 다른 이들을 지배할 수 없다(*dēmokratian hoti adynaton estin archein*)”는 당시 과두정지지자들이 민주정을 비판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었다(3.37.1).⁴⁾ 연설 시작에 이 말을 던짐으로써 클레온은 민중의 즉각적인 반발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 말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뫼틸레네 문제와 관련해서 당신들이 변심하는 것을 보니 과두정 지지자들의 말이 옳았던 것 같다. 당신들은 그런 말을 듣고 기분 나쁘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반발심을 유도하면서, 클레온은 동시에 ‘지배(*archein*)’의 의미를 교묘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원래 과두주의자들이 위의 표현을 사용해 민주정의 무능함을 비판했을 때, ‘*heterōn archein*’은 자신이 속한 도시의 내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클레온은 그것을 다른 도시에 대한 제국적 지배로 그 맥락을 전이시키고 있다. 그는 아테네 민중에게 제국 지배의 욕망이 존재함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민중들의 반발심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민중들을 격동시켜 그들이 가진 지배욕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클레온이 보기에, 문제는 아테네인들이 동료 시민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도시들을 대하는 것에 있다. 아테네인들은 “일상사에서to

4) Rhodes (1994), p. 205.

kath' hēmeran 서로에 대해 두려움이나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adees kai ampibouleuton(3.37.2)”, 다른 도시들도 그렇게 대한다. 클레온은 페리클레스가 장례식 추도연설에서 아테네 민주정 하에서의 시민들의 생활방식을 묘사한 것을 상당 부분 차용하고 있다. 페리클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공적인 일과 관련해서 정치 활동을 할 때에도, 서로의 일상사에 대한 tōn kath' hēmeran 의혹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eleutherōs 행동합니다. ... 우리는 이웃에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ou di'orgēs(2.37.2).” 하지만 클레온이 보기에 이것은 동맹국들을 대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아테네와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시민과 시민 간의 동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참주와 피지배민들 사이의 지배 복종 관계와 더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이 관계의 근거는 호의 eunoia가 아닌 힘 ischys이다. “여러분은 지배권을 참주권력으로서 가지고 있고 tyrannida echete tēn archēn, 여러분들에게 음모를 꾸미며 마지못해 복종하는 자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자신이 해를 입으면서 호의를 베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듣는 akroontai 것이 아니라, 호의가 아닌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⁵⁾

클레온의 묘사는 아테네의 제국적 지배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동맹국들에 대해서 아테네는 참주로서 군림하고 있다. 그리고 참주권력 하에서의 피지배인들이 그렇듯이, 동맹국들은 늘 음모를 꾸미고 있고, 마지못해 지배받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아테네가 제국 경영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아테네가 취해야 할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아테네는 그들을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지배해야 한다. 호의에 근거한 지배는 결코 제국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조금

5) 호의에 대한 언급은 2.8.4에도 등장한다. 투퀴디데스는 여기서 그리스인들이 아테네보다 라케다이몬인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혼블로워는 이 반박이 투퀴디데스가 클레온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이는 대목이라고 주장한다. Hornblower (1991), p. 423.

뒤에 클레온은 아테네가 뮈틸레네에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반란을 부추겼음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통해 아테네 민중의 분노를 되살리려 시도할 것이다.

클레온이 아테네가 “참주권력으로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tyrannida echete tēn archēn*)”고 말할 때, 그는 다시 한 번 페리클레스의 다음과 같은 말을 차용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미 *ēdē* 그것을 마치 참주권력처럼(*hōs tyrannida*) 가지고 있어서…(2.63.2).”⁶⁾ 하지만 두 사람의 말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는 지배권을 마치 참주권력처럼(*hōs tyrannida*)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 클레온은 페리클레스의 표현에서 ‘*hōs*’를 떼어내어 아테네가 참주권력으로서(*tyrannida*)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클레온의 표현은 페리클레스의 그것에 비해 더 노골적이고, 더 당당하다. 페리클레스가 마치 참주권력처럼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가 굳이 덧붙인 ‘*hōs*’에는 아테네를 단적인 참주권력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꺼림직함과 편치않음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아테네가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테네가 자신의 지배권에 속한 도시들을 대하는 방식은 분명 참주적인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은 그가 그 과정에 수반되는 불의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은 더 이상 지배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ēdē* 그것을 참주권력처럼 보유하고 있어서, 설사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 불의하더라도, 그것을 버리는 것은 위험한 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2.63.2).” 페리클레스는 ‘*hōs*’와 ‘*ēdē*’를 통해 그 불편함을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지배권을 마치 참주권력처럼 행사하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다. 반면 클레온에게서는 페리클

6) “아테네가 참주나 다름없다”는 주장은 페리클레스가 처음 한 것은 아니었다. 다른 도시들이 아테네를 경계하고 비난할 때, 가장 큰 비난의 내용은 아테네가 마치 참주인 양, 다른 도시들을 억압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인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 듯 보인다.

레스적인 불편함 혹은 민감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에게서는 지배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불의의 가능성도 언급되거나 암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테네의 참주적 성격이 그것의 민주정의 이념과 충돌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우려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가 앞으로 하게 될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그는 아테네의 불의를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아테네의 제국 지배에 저항하는 도시들의 불의에 분노하며 그것에 걸맞은 혹독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III. 평범한 사람 vs 현명한 사람

클레온은 당시 아테네에서 새로 부상하기 시작한 신흥 정치인의 유형에 속하는 인물이다. 아테네의 세력이 해군을 중심으로 커져감과 동시에 오랜 전쟁으로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자, 영향력이 점차 커진 민중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정치인들을 필요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명문가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들이 아닌 수공업, 상공업 등을 통해 부를 쌓은 사람들이 민중의 지지를 받아 활약하게 된다. 클레온도 귀족집안이 아닌, 부유한 피혁업자의 아들로 다수의 민중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인기를 얻으며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⁷⁾ 그는 펠리클레스와 같은 귀족 가문의 엘리트 정치인들을 공격하면서, 지성적이지 않은 민중의 대변자를 자처했다.⁸⁾

민중들의 제국지배 욕구를 불러일으킨 다음 클레온은 이 연설에서 자신의

7) Connor (1971), pp. 87-93; 김봉철 (1987), pp.113-125. cf. “데모스를 나보다 더 훌륭하게 지켜주고 더 사랑한 사람은/ 일찍이 아무도 없었어”
아리스토파네스 『기사들』, pp. 791-792.

8) 이런 사실은 플루타르코스 『모랄리아』나,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의 문헌 곳곳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클레온의 반 지성주의적 태도에 대해서는 Connor (1971), pp. 95-96.

정치적 지지기반인 그들을 지적인 소수에 맞세우면서 결집시키려 시도한다. 무지한 민중은 지적인 소수보다 오히려 더 나은 통치자가 될 수 있다. “좋은 법률을 가졌으나 강제력이 없는 *akyrois* 도시보다는 더 나쁘지만 변동 없는 *akinētois* 법률을⁹⁾ 가진 도시가 더 낫고, 절제함 없는 노련함 *dexiotēs meta akolasias*보다는 분별 있는 무식함 *amathia meta sōphrosynēs*이 더 유익하며, 더 평범한 자들 *hoi phauloteroi*이 더 식견 있는 사람들 *pros tous xynetōterous*보다 대개는 도시 *polis*를 더 잘 다스립니다(3.37.3).”

클레온이 ‘*phauloteroi*’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phauloi*’는 실제로 당시에 지적이고 세련된 좋은 신분의 사람과 대비되는, 낮은 신분의 평범하면서도 단순한 사람들, 곧 민중 *dēmos*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였다.¹⁰⁾ 앞서 클레온이 민중은 ‘민중은 지배할 수 없다’는 말을 끌어들여 민중의 반발심을 유도했다며, 이제 그는 민중이야말로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자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배운 것 없고 지성적이지 못한 평범한 이들이라 하더라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라고 추켜올린다.

클레온은 데모스의 적들이 데모스에 대해서 가지는 지적인 우월감을 혹독하게 비판한다. 그들은 “법률보다 더 현명한 자들 *tōn nomōn sōphōteroi*로 보이기를 원하고,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 보이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언제나 공적인 자리에서 연설하는 자들을 이기려는 자들”이

9) 엄밀하게 말해서, 뫼틸레네 사안과 관련한 결정은 법률 *nomoi*이라기 보다는 민회에서 다수의 투표로 결정된 결정사항 *psēphisma*일 것이다. 그러나 클레온은 이것을 ‘법률’이라고 말함으로써 변해서는 안 되는 것, 언제나 복종되어야 하는 것 *akinētos*임을 강조하고 있다. Hansen (1987), p.316. 기원전 4세기에는 이 둘 사이의 구분이 명확했지만, 기원전 5세기에는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nomos*에 보다 관습적이고 지속적인 의미가 들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10) 데모스를 지칭하는 또다른 용어는 ‘*poneroi*’였다. 하지만 이 단어에는 경멸적 의미가 담겨 있어서, 데모스가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phauloi*’는 경멸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단어였다.

Connor (1971), p. 89, n.3. eg. 에우리피데스『박카이 여신도들』, 430-433.

다(3.37.4). 그들은 자신들이 법보다 더 현명하게 보이기를 원하며¹¹⁾ 공적 토론의 장소를 자신의 지적 능력을 과시할 기회로 여길 뿐이다. 그 결과 도시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정책을 토론해야 할 자리는 지적 능력의 경연장이 되어버리고 만다. 반면 더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불신하며 hoi apistountes tēi ex autōn xynesei” “자신들이 법률보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amathesteroi tōn nomōn 생각해서, 상대의 말을 비판하는 훌륭한 연설가들보다 자신들이 능력이 없다고 adynatōteroi 여기는 자들”이다(3.37.4). 클레온은 바로 이들이야말로 “공정하게 심판하는 자들로서 대부분의 일들에서 똑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라고 칭송한다. 그들에게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클레온은 뮈틸레네 문제에 대해 재고해 볼 것을 제안한 사람들의 의도의 순수성에 흠집을 내면서, 원래의 결정을 고수하려는 사람이야말로 공정한 심판자이고 스스로를 ‘phauloi’로 간주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바꿔서는 안된다고 충고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클레온과 페리클레스의 또다른 차이점이 드러난다. 페리클레스는 장례식 추모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사안들을 판단하거나 제대로 논의하며 krinomen ge ē enthūmōmetha orthōs, 말이 행동에 해가 된다고 여기지 않고 ou tous logous tois ergois blabēn hēgoumenoi 행동으로

11) 똑똑한 사람들이 법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훌륭한 시민일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여러 문헌들에서 발견된다. “평범한 다수가 자신들의 규칙과 관습으로 삼는 것을 나도 받아들인다네 to phauloteron enomise chrē-/tai te, tod’an dechoiman.”(430-1) “법보다 더 강하다는 생각도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ou/gar kreisson pote tōn nomōn . ginōskein chrē kai meletān”(890-2) 에우리피데스, 『박코스 여신도들』. 이 구절은 또한 1권에 삽입된 스파르타 왕 아르키다모스의 연설 일부를 상기시킨다. “우리가 현명한 조언자인 것은, 우리가 법을 무시할 만큼 너무 많이 배우지 않았고 amatheron tōn nomōn tēs hyperopsias paideuomenoi 법에 복종하지 않기에는 자제력 훈련을 너무 엄격히 받았기 때문이오 xyn chalepotēti sōphronesteron ē ōste autōn an ēkoustein. 우리는 쓸데없는 기교에 너무 능하여 적의 작전을 탁월한 언변으로 비판하면서도 행동은 그에 미치지 못하도록 훈련받지 않았소.”(1.84.3) 스파르타인들과 아테네인들 사이에 공유된 ‘법과 배움’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Gomme (1956), pp. 300-301.

옮기기 전에 먼저 말을 통해 배우지 않는 것이야말로 해가 된다고 여깁니다alla mē prodidachthēnai mallon logō proteron ē epi ha dei ergō elthein(2.40.2).” “우리는 모험심이 강하면서도 사전에 심사숙고할 능력이 있는 데 반해, 다른 백성은 무지하기에 용감하고amathia men thrasos, 그들에게 숙고한다는 것은 주저하는 것입니다logismos oknon pherei(2.40.3).” 페리클레스는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숙고하는 것을 아테네인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클레온은 의도적으로, 민중을 “무식하고”, “자신의 지혜를 불신하고,” “어리석고,” “능력이 없는 자”라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다시 판단하거나 다시 논의하는 것보다 결정한 바를 밀어부치는 것이 더 올바른 일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지지기반인 평범한 시민들phauloi의 특성을 강조하고, 그것에 호소함으로써 민중선동가dēmagogos로서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IV. “말들의 관객, 행동들의 청중”

평범한 사람들과 식견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전자의 통치 자격을 옹호한 클레온은 3.38.1이하에서 공격의 타격을 아테네의 정치 문화 자체로 돌린다. 클레온이 보기에 아테네는 일종의 말의 경연장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경연들은 도시 자체를 위협에 빠뜨린다. 이렇게 된 책임은 이런 고약한 경쟁을 벌이는kakōs agōnothetountes 아테네인들 당신들 자신에게 있다. 그들은 이 경연장에서 “말들의 관객theatai tōn logōn, 행동들의 청중akroatai tōn ergōn”이 되는 것을 즐긴다(3.38.4). 이 표현은 복합적인 수사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일단 이 표현은 ‘logos’와 ‘ergon’의 대비를 끌어들이면서, 아테네인들이 실제로 그들이 행해야 할 일, 즉 뫼틸레네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은 하지 않은 채, 연설들을 구경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동시에 ‘theatai’와 ‘akroatai’는 도시의 정책을 진지하게 심의해야 할 민회가 극장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는 점을 암시한다. 클레온은 ‘logos’와 ‘ergon’의 대비를 다시 한번 끌어들여, 후자를 무시하고 전자만을 신뢰하는 아테네인들의 행태를 공격한다. 아테네인들은 미래와 관련한 일들 *ta men mellonta erga*에 관해서는, 연설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근거해 *apo tōn eu eipontōn*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 과거에 관한 일들 *ta de pepragmena ēdē*에 관해서는, 눈으로 본 것보다 말로 *logōi* 멋들어지게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을 더 신뢰한다(3.38.4). “여러분들은 기발한 논변에 속는 것에 있어서도 *meta kaiontētos men logou apatasthai* 최고이고, 검증된 것을 따르지 않으려는 것에 있어서도 *meta dedokimasmenou de mē xynepesthai ethelein*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이한 것들의 노예들 *douloi*…*tōn aiei atopōn*이고, 익숙한 것들의 경멸자들 *hyperoptai*…*tōn eiōthotōn*입니다(3.38.5).” 아테네인들은 구경꾼으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연설가가 되려고 하거나 연설가들과 경쟁하려 *antagōnizomenoitois* 한다. “여러분은 말이 나오기도 전에 재빠르게 *oxeōs* 미리 찬사를 보내고, 이야기된 바를 미리 파악하기를 열망하지만, 그 결과를 예상하는 것에는 느립니다 *bradeis*(3.38.6).” 그 결과 아테네인들은 현실로부터 분리되어 버리고 만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는 다른 어떤 곳을 찾고 있으며, 현재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3.38.7).” 한마디로 말해서 *haplōs*, 아테네인들은 “듣는 즐거움 *akoēs hēdonē*”에 빠져 “도시의 일에 관해 심의하는 자들 *peri poleōs bouleuomenois*이 아니라 소피스트의 말의 관객들 *sophistōn theatais*”이 되고 말았다(3.38.7).

이 부분에서의 클레온의 말은 마치 수사적 기교의 전시장 같은 느낌을 준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곳에서 그의 말은 과시적이고 고르기 아스적이다.¹²⁾ 여기에는 사실 상당한—그리고 아마도 투퀴디데스 자신이 의도했던—아이러니가 내포되어 있는데, 최선의 정책을 논의해야 할 토론의

12) 투퀴디데스가 전하는 연설문들 중 이처럼 다채로운 기교가 동시에 과시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없다. Yunis (1996), p. 91; Gomme (1956), pp. 304-7.

장이 말 잘하는 능력의 경연장이 되어버린 것을 비판하는 클레온의 언어 자체가 그가 비판하고 있는 특성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¹³⁾ 그는 대조와 대구의 기법을 반복적으로 활용한다. ‘theatai tōn logōn’, akroatai tōn ergōn’은 ‘theatai’와 ‘akroatai’의 대구와 ‘logōn’과 ‘ergōn’의 대조를 의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각적인 ‘theatai’를 청각과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logos’와, 청각적인 ‘akroatai’를 시각과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ergon’과 교차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아테네인들이 현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점까지도 표현하고 있다.¹⁴⁾ ‘ta men mellonta erga’와 ‘ta de pepragmena ēdē’(3.38.4), ‘meta kaiontētos men logou apatasthai’와 ‘meta dedokimasmenou de mē xynepesthai ethelein’(3.38.5), ‘douloi…tōn aiei atopōn’와 ‘hyperoptai…tōn eiōthotōn’(3.38.5)은 명백히 대조와 대구를 의도하고 있으며, 특히 마지막 쌍은 음절수의 일치 – ‘tōn aiei atopōn’과 ‘tōn eiōthotōn’ – 까지도 겨냥하고 있다. “재빠르게 찬사를 보내고…예상하는 것에는 느립니다”에는 ‘oxeōs’와 ‘bradeis’의 대조와 함께, 접두사 ‘pro-’의 의도적 반복이 나타난다(3.38.6). “여러분은 말이 나오기도 전에 재빠르게 미리 찬사를 보내고proepainesai, 이야기된 바를 미리 파악하기를proaisthesthai 열망하지만prothymoi, 그 결과를 예상하는pronēsai 것에는 느립니다.” ‘pro-’의 반복은 아테네인들이 상대를 앞지르겠다는 열망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¹⁵⁾

클레온의 말이 드러내고 있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기발한 논변과 소피스트의 말에 빠져 있는 아테네인들을 비난하는 그의 주장들이 궤변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뤼틸레네인들의 불의한 짓들adikias이 우리에게 유익하며ōphelimous, 우리의 불행들이xymphoras 동맹국들에게 해롭다고blasas” 말하는 셈이라고 주장한다(3.38.1), 하지만 이것은 반대 입장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다. 가혹한 처벌에 반대하는 것이 곧 뫼틸레네

13) Yunis (1996), p. 90; Macleod (1978), p. 71.

14) Gomme (1956), p. 304.

15) Gomme (1956), p. 305.

인들의 행위가 아테네에 유익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클레온은 다음과 같은 의심스러운 이분법을 제시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는 뮈틸레네의 행위가 아테네에는 해를, 뮈틸레네에는 이로움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만일 누군가 자신에게 반대한다면, 그들의 행위가 아테네에는 이로움을, 뮈틸레네에는 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클레온은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자는, 자신의 말의 능력을 믿고서, 전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반론하려 덤비는 자이거나, 뇌물에 혹해 말의 그럴 법함을 만들어내어 오도하려 할 자라고 말한다(3.38.3). 하지만 이 논변 역시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반대자들은 전날 결정된 바를 다시 논의해보자고 말하는 것이지, 결정된 바가 결정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¹⁶⁾

클레온은 현실과의 접점을 잃어버린 아테네의 정치적 연설의 모습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독자들은 그가 비판하고 있는 연설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의 연설 속에서, 그리고 특히 그 모습을 비판하는 바로 그 단락에서 확인하게 된다. 독자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않기는 어려우며, 이것은 분명 투퀴디데스가 의도한 바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클레온의 연설에는 민중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설 초반부에서 그는 똑똑하지는 않지만 우직하게 원칙을 고수하는 민중을 영리하지만 확고함을 결여한 지식인들과 대비시키면서, 전자를 칭송하는 듯 보인다. 그는 그러한 민중이야말로 진정으로 분별있는 자들이라고까지 선언한다. 하지만 연설이 진행되어가면서, 그는

16) 클레온은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뇌물에 혹한 자라고 말한다. 그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전자에 대해서는 optative+ *an*(future less vivid)을, 후자에 대해서는 미래형(future most vivid)을 사용함으로써, 가능성의 무게를 달리 두고 있다. 클레온이 이 상황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는 분명하다. 그 자신도 반대자들이 이미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재심의를 주장하는 자는 금전적인 이득 때문에 그럴 법한 논리를 만들어내려 하는 자임에 틀림없다.

민중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영리한 연설가들의 영향에 취약한가를 암시한다. 그들은 그러한 연설가들의 현란한 언사에 휘둘려 현실에 부합하는 옳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자들로 그려진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연설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제공하는 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다. 정치 토론을 수사술의 경연장으로 만들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은 다른 아닌 민중 자신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이 부분의 내용에서 클레온이 당대의 아테네 시민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사람이었던 이유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것이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가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민들에게 실제로 그들에게 최선인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들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V. “불의에 걸맞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설을 심의연설logos symbouleutikos, 법정연설logos dikanikos, 과시성연설logos epideiktikos 세 종류로 구분한다.¹⁷⁾ 이 구분에 따르면 클레온의 연설은 심의연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연설은 민회에서 행해지는 도시의 사안들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일을 권유하거나 만류하는 연설이기 때문이다(『수사학』1358b3-10).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의 연설이 심의연설보다는 법정연설의 특징을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심의연설은 "이로움이나 해로움to sympheron kai blaberon"을 목적으로 삼는 반면, 법정연설은 "정의와 불의to dikaion kai ton adikon"를 목적으로 삼는다(『수사학』1358b22-26). 또 심의연설에서는 연설가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가 중요한

17)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1358a36-1359a28.

반면, 법정연설에서는 청중이 어떤 심적 상태에 있는가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마음이 차분하면 생각이 한결같지만, 화가 나고 적대감을 느끼면 사물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거나, 같은 것이라도 다른 강도로 느낀다(『수사학』1377b29-34).”

클레온의 연설은 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정연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¹⁸⁾ 그는 반복적으로 뮈틸레네인들이 저지른 불의와 그것을 응징하는 것의 정의로움을 강조한다. 또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청중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려고 시도한다. 뮈틸레네 문제를 재고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이자 그들이 저지른 불의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클레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한 것에 대한 값은 *amynesthai tōi paschein* 가장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걸맞게 처벌을 되돌려 받습니다 *antipalon... tēn timōrian analambanei*(3.38.1).” 여기서 클레온은 ‘저지른 자는 당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보복적 정의관을 끌어들이고 있다. 당한 대로 갚아야 한다는 이 보복적 정의관은 호메로스와 비극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다. 클레온은 아테네인들에게 너무나 친숙했을 이 오래된 정의관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¹⁹⁾ 그는 마음이 바뀌기 전, 아테네인들이 뮈틸레네인들을 향해 가졌던 그 분노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정의와 불의의 개념에 호소한다. 보복에 대한 욕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규정이 시사하는 것처럼,²⁰⁾ 자연스럽게 분노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클레온은

18) 클레온 연설의 법정연설적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을 기원전 4세기 데모스테네스의 법정연설의 사례들과 비교한 논의로는 Harris (2004), p. 100. 를 볼 것. 사실, 클레온이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이 페리클레스를 고발하면서부터라는 점도 기억해둘만 하다. 클레온은 특히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관직을 마치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심사에서 그들을 고발하거나, 과두정 지지자들을 모반죄로 고발하는 것을 주 무기로 삼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Meiggs (1972), p. 318.

19) “살인의 값은 살인으로 갚을지이다. 저지른 자는 당하기 마련이니까. 이는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라네 *anti de plēges phonias phonian / plēgēn tinetō. dranti pathein, / trigerōn mythos tade phōnei*.” (아이스퀼로스,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313-5) 보복적 정의에 관해서는 Winnington-Ingram (1965), 72f. 참조.

그 연결고리를 활용하고 있다. 클레온의 수사적 전략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분노의 양을 고려 사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정당한 처벌의 양은 분노의 양에 비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처음 느꼈던 분노만큼을 처벌하는 것이 불의에 걸맞는 정의로운 처벌이다. 따라서 처음의 분노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누그러져서 뫼틸레네인들에게 너그러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클레온 문장의 법정연설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또 하나의 측면은 그가 반복적으로 뫼틸레네의 반란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클레온이 보기에, 만일 뫼틸레네인들이 아테네인들의 지배를 견딜 수 없었거나 *mē dynatoi pherein tēn hymeteran archēn*, 적들에 의해 강요되어 *anagkasthentes* 반란을 일으켰다면, 동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autonomoi* 가장 존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imōmenoi es ta prōta* 그런 일을 저질렀다.²¹⁾ 그들은

20) “분노는 자신이나 자신의 친구에 대한 부당한 멸시로 생각되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수로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고통을 수반하는 욕구이다.”

『수사학』1378a pp. 30-31.

21) 3.39.7에서 클레온은 뫼틸레네가 반란에 성공하게 되면 그 결과 얻게 되는 것을 자유 *eleutherōsis*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뫼틸레네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유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셈이 된다. 문제는 디오도토스가 3.46.5에서 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뫼틸레네가 자치권을 원하는 자유로운 도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뫼틸레네인들은 반란을 일으키기 전 스파르타에 도움을 청하면서, 아테네인들이 ‘헬라스인들을 페르시아의 압제로 해방시킨다’는 명목 하에 되려 동맹국들을 ‘노예로 삼고 있다고 비난한다. 3.10.3-4. 그리고 자신들이 아테네와의 동맹을 이탈한 것이 자신들까지 노예로 삼을까봐 두려워서라고 주장한다. “동맹국들을 노예로 삼는데 점점 열을 올리자 우리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3.10.4).” 뫼틸레네인들은 자신들과 키오스인들이 유일하게 ‘아직은’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들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 명목상 자유인이라고 밝혔다. 생 크와는 이 구절을 근거로 자치권을 가졌다 해도 온전한 자유를 가지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

Ste Croix (1954), pp. 16-21. 레비 또한 (3.10.5를 근거로) 뫼틸레네는 진정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직 명목상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해석을 제안한다. Lévy (1976), p.10, n.15.

저항한 *apestēsan* 것이 아니라 음모를 꾸민 *epebouleusan* 것이고 역모를 꾀한 *epanestēsan* 것이다. 저항 *apostasis*은 압제를 겪은 자들 *tōn biaion ti paschontōn*에 게나 해당되기 때문이다(3.39.2).²²⁾ 투퀴디데스는 3.36.2에서 뮈틸레네가 “다른 도시들과 같은 속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ouk archomenoi*”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아테네인들이 특히 분노했다고 이미 밝혀 두었었다.²²⁾ 클레온은 이 사실을 뮈틸레네가 불의를 저질렀음에 대한 근거로 끌어오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동등하게 대해준 아테네를 자발적으로 배신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아테네의 적인 라케다이모니아인들과 결탁했으니 더욱 용서는 있을 수 없다.²³⁾

3.40.1에서 클레온은 다시 자발성과 비자발성의 주제로 돌아온다. 그는 뮈틸레네인들이 자신들이 벌인 일을 실수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실수는 인간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 *xyngnōmēn hamartēin anthrōpinōs lēpsontai*(3.40.1)”이 아닌가? 하지만 클레온은 단호하게 답한다. 그들은 비자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알고서 음모를 꾸민 것이다 *akontes men gar ouk eblapsan, eidotes de epebouleusan*. 오직 비자발적인 행위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 *xyngnōmon d'esti to akousion*.²⁴⁾

클레온은 뮈틸레네에 대한 정의롭고 무자비한 처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22) 뮈틸레네는 아테네 제국 안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아테네 제국 안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분담금을 내야 했지만 뮈틸레네를 비롯해 단 세 개의 도시만이 분담금 대신 함대를 파견했다. 그 대신 그들은 자치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Gomme (1956), p. 252.; cf. 7.57.5 ; Sealey (1976), p. 329.

23) 사실 이 말은 다소 자기 모순적이다. 앞서 클레온은 아테네가 동맹국들을 참주로서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만약 아테네와 뮈틸레네의 관계가 지배-종속 관계라면, 뮈틸레네가 벌인 일은 반란이 아닌 저항(*apostasis*)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24) Cf.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3. 1109b30ff.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용서가, 경우에 따라서는 연민까지 생겨나므로, 탁월성에 대해 탐구하는 사람은 아마도 필수적으로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것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아테네 법정은 초기부터 자발적/우발적/그리고 정당화된 살해를 구분했다. Hornblower (1991), p. 430.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연민oiktos과 관용epieikeia이 그것이다.²⁵⁾ 이 둘은, 말의 즐거움hēdonē logōn과 함께, 제국 통치에 가장 해가 되는 것들로 규정된다(3.40.2).²⁶⁾

클레온은 비슷한 자들에게pros tous homoious 연민을eleos 돌려주는 것은 antididosthai 정의롭지만dikaios, 연민을 갚아주지 않을out' antoiktiountas 자들, 그리고 필연적으로ex anankēs 계속해서 적인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클레온의 전략은 연민조차도 정의와 불의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연민을 상호적인 것, 즉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가 ‘비슷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동등한 지위를 가진 도시들이다. 즉 연민은 동등한 지위를 가진 도시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테네와 뫼틸레네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전자는 후자를 참주로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강자인 아테네는 약자인 뫼틸레네로부터 연민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아테네가 뫼틸레네에 연민을 보인다면, 그것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불의를 저지르는 일이 될 것이다.

클레온은 관용epieikeia의 경우 그것이 앞으로 친구가 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지, 이전 못지않게 우리의 적으로 남아있을 자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epieikeia’는 번역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단어이다.²⁷⁾ 모든 맥락에서 일관되게 사용될 수 있는 번역어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단어이기

25) 이 단어는 투퀴디데스 『역사』의 다른 심의연설문들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이다. Harris (2004), p.100. 예를 들어, 처자식을 앞세워 연민에 호소하는 것은 당시 법정에서 흔히 사용되던 방법이었다.

26) Macleod는 클레온이 ‘epieikeia’와 ‘oiktos’ 사이에 이질적인 ‘hēdonē logōn’을 끼워 넣음으로써 실제보다 더 많은 논거들이 사용되고 있는 인상을 주는 수사적 기교를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Macleod (1978), p. 96.

27) ‘Winnigton-Ingram(1965)은 번역어로, ‘fairness’, ‘decency’, ‘humanity’, 그리고 ‘reasonableness’를 제안한다. 반면 Macleod(1978)는 ‘clemency’, Crawley-Strassler(1996)는 ‘indulgence’, Jowett(1881)은 ‘a too forgiving temper’로 번역하고 있다.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epieikeia’가 ‘dikaion’ 혹은 이와 연관된 단어들과 대비되어 논의되는 경우들인데, 현재까지 전해지는 몇몇 용례들을 근거로 판단하자면, 이 경우 ‘epieikeia’는 정의의 원칙의 엄격함에 대비되는 너그러움, 관용, 인간적인 고려 등을 의미한다.²⁸⁾

클레온이 그의 연설 속에서 자신의 제안의 이로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그는 그것을 정의의 문제와 결합시킨다. “제 말에 설득되신다면, 여러분은 뮈틸레네인들과 관련해서 정의로운 일ta dikaia과 동시에 유익한 일ta xymphora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반면 달리 결정하신다면, 그것은 저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유죄 판결하는dikaiōsesthe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옳다면orthōs, 여러분은 지배하지 말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ou chreōn arkoite(3.40.4).” 클레온은 또다시 사법적 용어를 사용해 아테네인들을 이분법적 틀로 끌고 들어간다. 만일 마음이 약해져서 뮈틸레네인들을 봐준다면, 이것은 스스로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이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테네의 지배에 반기를 드는 것이 불의하지 않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이것은 곧

28) “... 그들은 종종 완고한 정의로움authades dikaion보다는 온화한 관용praos epieikes을 선택했고, 종종 법의 정확성nomon akribeia보다 말들의 올바름logōn orthotēta를 선택했습니다”(고르기아스 단편 6); “많은 사람들이 더 관용적인 것들ta epieikestera을 정의로운 것들ta dikaia보다 선호합니다”(헤로도토스 『역사』 3.53.4); “신들은 관용적인 것들ta'epieikē을 정의보다 선호할 만한 것으로 판단한다”(에우리피데스 단편 645N); epieikeia에 관한 가장 널리 알려진 논의는 『니코마코스 윤리학』5권 10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점은 dikaiosynē를 대변하는 법이 불가피하게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는 반면, epieikeia는 개별 사안에 따른 올바름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더 뛰어난 것이라는 점이다. 일견 그가 설명하고 있는 epieikeia는 관용과 너그러움으로서의 epieikeia와 매우 다른 어떤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5권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epieikeia를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덜 갖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관용으로서의 epieikeia를 완전히 있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두 전통에 관한 논의로는 전현상(2018)을 참조.

아테네의 제국 지배가 불의하다는 의미가 될 것이니, 결국 아테네의 제국 지배에 유죄를 선고하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클레온은 제국 지배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한, 설사 그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가차없는 응징을 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만일 온당하지는 않지만 *ou prosekon*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기신다면, 개연성에서 벗어나 *para to eikos* 여기 이 자들을 이익을 위해 *xymphorōs* 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국을 포기하고 위험과 떨어져서 인간적으로 지내는 일 *andragathizesthai* 이나 해야 합니다(3.40.4).” 우리는 마음이 약해져서 *malakisthentes* 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뮈틸레네인들을 봐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3.40.7). 제국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처음 가졌던 그 분노의 상태로 돌아가서 즉각적인 응징, 그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서 다른 도시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제국을 확고히 하고, 이후의 위험을 막는 길이기 때문이다.

VI. 아테네의 휘브리스-뮈틸레네 연설의 의미

클레온은 뮈틸레네의 반란을 단순한 불의를 넘어 일종의 오만 *hybris* 라고 규정한다.²⁹⁾ 뮈틸레네인들은 다른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본 *paradeigma* 으로 삼지 못했다.³⁰⁾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29) 투퀴디데스의 『역사』에 나타나는 정치적 휘브리스에 대해서는 de Romilly(1977), pp. 42-62.

30) 이 구절은 뮈틸레네인들이 그들은 아테네의 강압적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다른 도시들의 예 *paradeigma*’를 보면서 자신들도 결국 자유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대목과 기묘하게 대조된다(3.10.6, 3.11.8). 3.40.7에서 클레온은 뮈틸레네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다른 제국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을 것을 요구할 것이다.

행운 $\epsilon\upsilon\delta\alpha\iota\mu\omicron\nu\iota\alpha$ 을 깨닫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과신 $\pi\omicron\varsigma\ \tau\omicron\ \mu\epsilon\lambda\lambda\omicron\nu\ \theta\upsilon\lambda\epsilon\iota\varsigma$ 과 그들 자신의 힘을 넘어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epsilon\lambda\pi\iota\varsigma\alpha\iota\tau\epsilon\varsigma\ \mu\alpha\kappa\omicron\tau\epsilon\rho\alpha\ \tau\acute{\epsilon}\varsigma\ \delta\upsilon\nu\alpha\mu\epsilon\omicron\varsigma$ 그 일을 저질렀다. 그들은 정의보다는 힘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로 작정했고, 아테네로부터 불의한 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성공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다(3.39.3). 클레온은 뮈틸레네인들의 행위 속에서 인간과 도시의 본성적 행태를 발견한다. “생각지도 않다가 엄청난 성공 $\epsilon\upsilon\pi\tau\alpha\gamma\iota\alpha$ 을 누리게 된 도시들은 오만에 빠지는 법입니다(3.39.4).” “우리는 뮈틸레네인들을 오래 전부터 다른 이들과 다르게 존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이 정도까지 오만해지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omicron\upsilon\kappa\ \alpha\grave{\nu}\ \dots\ \epsilon\chi\eta\beta\iota\varsigma\alpha\iota\varsigma$. 다른 경우에서도 사람은 본성적으로 $\pi\epsilon\phi\eta\kappa\epsilon$ 돌보아주는 것은 $\tau\omicron\ \theta\epsilon\rho\alpha\pi\epsilon\upsilon\omicron\nu$ 무시하고, 봐주지 않는 것에는 $\tau\omicron\ \mu\grave{\epsilon}\ \hbar\upsilon\pi\epsilon\iota\kappa\omicron\nu$ 존경하기 때문입니다(3.39.5).”

뮈틸레네인들의 행위를 휘브리스 $\hbar\upsilon\beta\iota\varsigma$ 로 규정함으로써 클레온은 비극적 혹은 헤로도토스적 주제를 논의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것은 뮈틸레네에 대한 가혹한 처벌에 거의 종교적인 정당성을 부여한다. 뮈틸레네에 대한 응징은 단순한 세속적인 차원의 보복이 아니라, 신적인 차원에서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오만에 빠진 자는 신들의 징벌을 받는다는 생각은 그리스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것이었다. 클레온은 이러한 뿌리 깊은 생각을 활용하고 있다.³¹⁾

하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결말과 앞으로 아테네가 겪게 될 일들을 알고 있는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인상을 떨치기 어렵다. 사실상 이 시점에서

31) 인간이 변영 $\omicron\lambda\beta\omicron\varsigma$ 하면 과도함이나 무절제 $\kappa\omicron\varsigma\omicron\varsigma$ 에 빠지고 곧 오만 $\hbar\upsilon\beta\iota\varsigma$ 해진다. 그들은 오만에 의해 미망 $\alpha\tau\epsilon$ 에 빠져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김기영 (2009), p. 79. "솔론(Solon의 엘레게이아 단편 4(ed.Gerber) “그들은 분명 커다란 휘브리스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으리라. 과도함을 억제하는 방법을 모르기에(4.7-9)” 테오그니스의 엘레게이아 단편 153-4(ed. Gerber): “참으로 과도함이 휘브리스를 낳는다네, 정신이 온전하지 한 사악한 인간에게 변영이 찾아올 때.” 김기영 (2009), p. 79, n.4에서 재인용.

가장 심한 휘브리스에 빠져 있는 도시가 다름 아닌 아테네이다. “미래에 대한 과신”과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희망을 가지고,” “정의보다 힘”을 존중하기로 작정한 도시는 아테네이기 때문이다. 클레온의 연설은 아테네의 제국 지배에 대한 가장 *오만한* 정당화이다. 그는 끊임없이 그 지배에 대한 저항의 불의함과 그 저항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화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클레온의 화려한 언사 속에 감춰져 있는 아테네 제국 지배의 불편한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 뫼틸레네인들이 저지른 불의를 거듭 강조하며 아테네인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분노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클레온의 말을 따라가면서, 독자들은 당연하게도 다음과 같은 의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 당신은 아테네가 뫼틸레네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양자에게 공평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인가? 왜 그 상황이 정상 상황이고, 그것을 깨는 일은 불의한 일로 간주되어야만 하는가?

투퀴디데스는 클레온으로 하여금 과도하게 공격적이고 지나치게 아테네 중심적인 논리를 쏟아내게 함으로써, 당시 아테네에 널리 퍼져있었던, 제국 지배에 대한 자기중심적 정당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투퀴디데스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든가, 그것이 지나친 것이었다든가에 대한 평가를 직접 내리지 않는다. 그는 단지 차분하지만 냉정한 시선으로, 자신이 관찰했던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정치 지도자의 마음을 독자들에게 전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 이후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투퀴디데스의 평가(2.65)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 마음은 상당 부분 아테네 민중의 마음이기도 했다. 투퀴디데스는 페리클레스 이후의 정치 지도자들이 민중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어떻게든 그것에 부합해 최고의 권력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쏟았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시 대표적인 민중 지도자였던 클레온과 그의 연설은 당시 민중들이 아테네의 제국지배에 관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것에 대한 정당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클레온의 연설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논란 끝에

채택된 것은, 책임자만 처벌하자고 주장한 디오도토스의 안이었다. 그 결과로 뮈틸레네는 도시의 파멸을 모면할 수 있었고, 관련자들만 처형되는 것으로 사태는 정리된다. 일견 이 결과는 아테네 민중이 클레온의 생각을 거슬러, 뮈틸레네인들에게 일종의 관용을 베푼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거수표결에서 양편은 거의 같은 표수를 얻었다. 그리고 디오도토스의 안에 따라 처형된 사람의 수는 무려 천명 이상이었 고, 그들은 모두 재판 없이 처형되었다.³²⁾ 또 기원전 423년 스키페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테네인들은 클레온의 발의와 설득에 따라 스키페를 파괴하고 시민 전체를 도륙하는 결의안을 즉각 통과시켰고(4.120-123) 후에 그 결의안대로 실행했다. 지배에 대한 어떠한 저항도 용인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가혹한 응징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아테네의 오만은 기원전 416년의 멜로스 회담에서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마침내 아테네의 몰락에 결정타를 가한 시칠리아 원정(기원전 415-414년)으로 이어진다. 클레온의 연설은 - 투퀴디데스가 보기에- 아테네가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아테네의 가장 영향력 있었던 정치 지도자와 민중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최선의 것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민중을 적절하게 통제하려고 했던, 그리고 통제할 수 있었던 페리클레스에 반해, 클레온은 민중의 원초적인 감정과 욕구를 부추기고, 확대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투퀴디데스가 보기에 그것은, “일인자가 되려는 열망 때문에 도시의 사안들을 민중의 즐거움에 맡겼던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이다.

32) Kagan (1975), pp. 88-89.

참고문헌

- 김기영 (2009), 「아이스퀼로스의 비극에 나타난 전쟁관」, 『서양고전학연구』, 37: 77-103.
- 김봉철 (1987), 「<테마고고스> 클레온」, 『역사학보』, 113: 101-140.
- 전현상 (2018), 「syngnōmē와 epieikeia-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의 용서의 기초」, 『철학논집』 54: 53-78.
- 아리스토텔레스, 강상진 외 역 (2011),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길.
-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2017), 『수사학』, 출판지: 도서출판 숲.
- 아리스토텔레스, 최자영 외 역 (2002), 『아테네 정체』 (『고대 그리스정치사
사료』에 수록), 서울: 신서원.
- 아리스토파네스, 천병희 역 (2010), 『아리스토파네스 비극 전집』1,2, 파주:
도서출판 숲.
- 아이스퀼로스, 천병희 역 (2008), 『아이스퀼로스 비극 전집』, 파주: 도서출판 숲.
- 에우리피데스, 천병희 역 (2009), 『에우리피데스 비극 전집』, 파주: 도서출판 숲.
- 헤로도토스, 김봉철 역 (2016), 『역사』, 서울: 길.
- Andrewes, A. (1962), "The Mytilene Debate: Thucydides 3.36-49", *Phoenix*, 16(2): 64-85.
- _____ (1988), *Orge and Gnome in the Mytilene Debat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_____ (2000), "Cleon's Hidden appeal (Th.3.37-40)", *Classical Quarterly*, 50: 45-62.
- Arnold, P. E. (1992), "The Persuasive Style of Debates in Direct Speech in Thucydides", *Hermes*, 120(1): 44-57.
- Cogan, M. (1981), "Mytilene, Plataea, and Corcyra Ideology and Policy in Thucydides, Book Three", *Phoenix*, 35(1): 1-21.
- Connor, W. R. (1971), *The New Politicians of Fifth-Century Athe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rawley, R.B. and Strassler, R. (1996), *The Landmark Thucydides: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Peloponnesian War*, New York: Free Press.
- Gomme, A. W. et al. (1956), *A Historical Commentary on Thucydides*, vol.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 Romilly, J. (1963), *Thucydides and Athenian Imperialism*, tr. by Philip Thody, New York: Banned & Noble
- _____ (1977), *The Rise and Fall of States According to Greek Author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Harris, E.M. (2004), "Le role de l'epieikeia dans les tribunaux atheniens" *Revue historique de droit francais et étranger*, 82: 1-13.
- _____ (2013), "How to Address the Athenian Assembly: Rhetoric and Political Tactics in the Debate About Mytilene (Thuc. 3.37-50)", *Classical Quarterly (New Series)*, 63(1): 94-109.
- Hansen, M.H. (1987), "Nomos and Psephisma in Fourth-Century Athens", *Greek, Roman and Byzantine Studies*, 19 (4): 315-330.
- Hornblower, S. (1991), *Commentary on Thucydides*, vol.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ones, H.S. and J.E. Powell eds.(1942), *Thucydides Historiae*, Oxford: Clarendon Press.
- Kagan, D. (1975), "The Speeches in Thucydides and the Mytilene Debate", *Yale Classical Studies* 24: 71-94.
- Lévy, E. (1976), *Athènes Devant la défaite de 404: Histoire d'une Crise Idéologique*, Paris: E. de Boccard.
- Macleod, C. (1978), "Reason and Necessity: Thucydides 3.9-14, 37-48", *Journal of Hellenic Studies* 98: 64-78.
- Mader, Gottfried (2017), "Demagogic Style and Historical Method: Locating Cleon's Mytilenean Rhetoric (Thucydides 3.37-40)", *Rhetorica: A Journal of the History of Rhetoric*, 35(1): 1-23.
- Meiggs, Russell (1972), *The Athenian Empire*, Oxford: Clarendon Press.
- Rhodes, P. J. (1994), *Thucydides, History III*, Warminster: Aris & Phillips.

- Sealey, R. (1976), *A History of the Greek City States, Ca. 700-338 Bc*, Berkeley: Berkeley University Press.
- Ste Croix, G. E. M. (1954), "The Character of the Athenian Empire", *Historia*, 3(1): 1-41.
- Thucydides (1942), *Historiae*, Jones, H.S. and J.E. Powell (eds.), Oxford: Clarendon Press.
- Jowett, B. (1881), *Thucydides translated into English* (ed.), Oxford: Clarendon Press.
- Strassler, R. B., & Crawley, R. (1996). *The landmark Thucydides: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Peloponnesian War*. New York: Free Press.
- Winnington-Ingram, R. P.(1976), "TA DEONTA EIPEIN; Cleon and Diodotus",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12: 70-82.
- Yunis, Harvey (1991), "How Do the People Decide? Thucydides on Periclean Rhetoric and Civic Instruction",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12(2): 179-200.
- _____ (1996), *Taming Democracy: Models of Political Rhetoric in Classical Athen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Cleon's speech in the so-called Mytilenian debate as described by Thucydides in his History 3.36-40. The speech is analyzed focusing o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in particular. First, this article explores how Cleon is stimulating the demos' desire for domination in order to rekindle their anger against the Mytilenians and how he is trying to unite the ordinary people(phauloi) while evoking hostility to their opposition. Second, this article analyzes Cleon's attack on the contemporary Athenian political culture, which is devoted to the competition of the words rather than to the discussion of real issues and then examines the meaning of the irony revealed in it. Third, this article pays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judicial oratory in Cleon's speech and examines how they are implemented in the expressions and rhetorical strategies of the speech. Through these analyses this article aims to show more concretely that Cleon's speech was the most arrogant justification for the Athenian empire and that by presenting the speech in detail, Thucydides intended to demonstrate how the most influential political leader of Athens and the people interacted at the point of the beginning of the downfall of the Athenian empire.

【Keywords】 Thucydides, Cleon, Athenian Democracy, Athenian Imperialism, Mytilene, *Dēmos*.

논문 투고일: 2019. 03. 26

심사 완료일: 2019. 04. 14

게재 확정일: 2019. 04. 14